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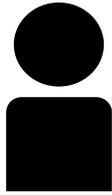


청해시 혐오시설 건설 사례

< 면담실습 >

역할 및 배경상황

역할



참가자 A
청해시 환경보호과
장기획 과장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반대



쓰레기 소각장 건설 설득



참가자 B
주민대책위 대표
나고향 위원장

배경상황

- **오늘은 2013년 5월 8일입니다.**
- 2009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폐기물 해안매립지 사업은 매립 소요 면적의 증가와 생활 환경의 오염, 쓰레기 이동, 단순 투기식 매립방식으로 인한 도시환경오염 및 작업의 비효율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 환경부와 건설부는 쓰레기 처리에 있어 소각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고 청해시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에 청해시는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것은 2009년 9월 7일 환경부와 건설부가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발생주의 원칙'을 발표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 하지만 이런 건설계획이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격렬해지고 있어 청해시 측과 주민대표 측의 의견조율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청해시 환경보호과 장기획 과장과 주민대책위대표 나고향 위원장은 현재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과정에 따른 각자의 입장을 계진하고 상호 협의를 통한 향후 추진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I. 공통자료

목적 및 부지선정 과정

I 사업의 목적

청해시 쓰레기 소각장 사업은 '청해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 이후 단지내 수용할 계획인구 168,000명(공동주택 165,000명, 단독주택 3,000명)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1996ton/일)을 합리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구체적인 사업목적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지구내 일반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 및 감량화에 기여한다.
- 둘째,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의 재활용을 도모한다.
- 셋째, 일반 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한다.
- 넷째, 소각장 운영 시 배출되는 가스를 완전 연소 처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한다.
- 다섯째, 매립지 확보난을 해소하고 현존 매립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한다.

II 부지선정 과정

2010년 7월 6일 1차 소각장 후보지 선정	평가	2011년 2월 14일 2차 소각장 후보지 선정	평가
1. 한수동 산 166번지	- 주택가와 근접한 지역으로 부적격 판정	1. 정곡동 221번지	-부지협소 -국도 가시권 지역 -인근마을 민원발생 가능성 ==> 부적격 판정
2. 산전동 95-5번지		2. 정곡동 274번지	-한수 컨트리 클럽 가시권 ==> 부적격 판정
3. 산전동 산 1-6번지		3. 산전동 산 166번지	적격 판정
4. 산전동 747번지			

* 자료: 홍보자료(2013, 청해시 쓰레기 소각장 범시민 대책위원회)

공통자료 2. 이메일 - 청해시 환경보호과 장기획 과장의 메일

■ 받은메일함

보낸사람	청해시 환경보호과 장기획과장 <khchang@chc.go.kr>
받는사람	주민대책위원회 나고향위원장 <mehome@naum.net>
받은시간	2013-05-1 11:20
제 목	안녕하십니까, 청해시 환경보호과 장기획 과장입니다
첨부파일	

나고향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청해시 환경보호과 장기획 과장 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메일로 드려서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이 출장인 관계로 확인 차 연락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인하여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많은 시민 분들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저희도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 및 건설부가 요구하는 원칙도 있고 또한 현재 사용 중인 금포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도 있고 해서 여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우리 시 전체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소각장 건설 건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전번 약속한 바와 같이 5월 8일 저희 시청 소회의실에서 뵙고 이 모든 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그럼 회의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Ⅱ. 역할별 자료

(참가자 A. 청해시 환경보호과 장기획 과장)

쓰레기 소각장 추진 원칙 및 협조 사항

2013. 3. 26 청해시 환경보호과 정진수 주무관

I 소각장 건설 원칙

1 물리적 한계 극복

- 쓰레기 처리방침은 감량화와 재활용을 최우선으로 추진
- 남는 쓰레기는 “자체 처리” 원칙- 현재 이용 중인 원거리 ‘금포매립지’ 활용이 현지 주민들 반대로 어려움에 처함. 또한 그 시한조차 20 여 년 밖에 남지 않았음

2 최근의 경향

- 선진국은 물론 국내 대도시 및 수도권 신도시에서도 단지내에 소각장을 설치 중에 있거나 현재 가동중임
- 일본의 경우 현재 1,899개의 소각장을 가지고 있음

3 세부추진사항

- 운반차량은 매일 세륜, 세차 및 소독을 하고 심야에만 운영
- 다이옥신의 생성방지를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위해 반건식알칼리 흡수시설과 여과침전시설을 병행 설치

4 최 첨단 기술의 도입

- 최근 독일에서 다이옥신을 파괴하여 물, 염화수소,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촉매장치가 개발되어 이 장치를 도입할 예정임

II 비용 부담의 최소화

1 재활용 처리의 한계

- 쓰레기 중 최대 10% 정도만 재활용 처리 가능
- 무리한 쓰레기 재생은 소각보다 몇 배의 비용부담과 환경오염을 초래

2 협조 및 이해 도모

- 남는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자원회수를 하는 것 또한 자원을 보전하는 것임
- 자원회수시설은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며 우리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공익시설임

Ⅲ. 역할별 자료

(참가자 B. 주민대책위원회 나고향 위원장)

청해시 쓰레기 소각장 진행 과정 분석

2013. 02. 11 한국갈등학회 워크샵 발표자료

□ 시청과 주민과의 정보공유 미흡

○ 사전담합 의혹 제기

문제는 소각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 있어 시청과 주민과의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주민들 사이에는 재벌기업의 로비설과 개인의 특혜 의혹설이 퍼져 있었다. 2012년 소각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제2 후보지였던 정곡동 274번지인 한수 컨트리클럽 주변 지역의 후보지 제외와 관련하여 각종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주민들은 골프장 부근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불공정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으며, 산전 지역 한수아파트 주민이자 사회학자인 노필연 교수는 2012년 3월 1일자로 사회당 류오상 의원에게 산전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 및 소각로 개설과 관련하여 제일건설사측을 비롯하여 경 시도, 청해시, 경찰 등의 사전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 자료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청해시가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남포군 전월면에서 소각장을 잇는 2.08km의 진입도로를 건설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진입도로 주변 땅의 소유자인 경진도 의회 의장과 그의 문중에게 도로 편입으로 인한 보상이라는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후 청해시는 2012년 4월 25일 확정된 후보지인 산전동 산 166번지를 대상으로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청해시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 사업의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11일에는 다음과 같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 위 치: 산전동 산 166번지 일원(신도시 외곽 그린벨트지역)
- 부 지 면 적: 5,624평(소각시설 3,993평, 법면 녹지 1,631평)
- 연 건 축 면 적: 2,225평
- 시 설 규 모: 200톤/일(전연속 연소방식의 스토카식) / (발생 243톤/일 - 소각 200톤, 재활용 42톤)
- 대기오염 방지시설(3차): 굴뚝높이 100m(반건식 알카리 흡수시설+백휠터+촉매산화장치)
- 수 질 오 염 방 지 시 설: 물리, 화학, 생물학적 처리시설
- 청 소 차 량 운 행 계 획: 밀폐식 압축차량 사용 (자동세륜, 세차시설 설치로 청소차량 매일세차 및 소독실시)
- 공 사 기 간: 2014. 12-2016. 12
- 사업시행자 및 사업비: 한국토지공사 280억원 (소각시설: 200억원, 부지매입 및 용역조사 20억, 진입도로 60억원)

* 자료 : 「국정감사자료」(2012, 행정부)

IV. 관찰 피드백